

여수, 올해 국비 7,301억 확보

지난해 대비 1,197억원 증가 화태·백야 도로 등 33건 포함 생활SOC 확충 정주 개선 기대

여수시가 여수섬섬길 완성을 위한 화태·백야 도로건설 사업 671억 원 등 올해 정부예산 7,301억 원을 확보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을 정부예산에 국가(도) 추진사업 2,741억 원, 시 추진사업 4,560억 원이 포함됐다.

올 국비 확보액은 지난해 6,104억 원보다 1,19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화태·백야 도로건설 등 대형 SOC 사업과 광양항 광역철도 투기장 조성사업,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대형 지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비 확보 과정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에게 현안사업 예산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6건 12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값진 성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 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거둔 두드러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신규 사업은 18건 189억 원으로 ▲광양(여천)항 모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총 사업비 1,374억 원), 여수수협 위판장 위생안전시스템 구축(총 사업비 30억 원), 월내매립장 증설공사(총 사업비 100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 SOC분야는 33건 1,903억 원으로 ▲화태·백야 도로건설 671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 486억 원 ▲국도17호선 만덕교차로 개선 86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92억 원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116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 45억 원 등이다.

경제 산단지원 분야에서는 여수국가산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건 568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260억 원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 구축사업 79억 원 ▲스마트그린산단 축진(여수산단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 45억 원 ▲여수산단 재

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 7억 원 등을 추진한다.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분야는 6건 206억 원으로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107억 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25억 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20억 원 등을 확보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건 1,164억 원으로 ▲광양항 광역철도 투기장 조성사업 618억 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11억 원 ▲여수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41억 원 ▲거문도항 삼호교 건설 2.5억 원 ▲수산물 청정위판장 구축사업 11억 원을 확보했다.

정기명 시장은 “올해 국비 예산에 화태·백야 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생활SOC 분야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며 “여러 부문에서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0여 건의 국고건의사업을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 벼 출하 장려금 20억 지급

쌀값 하락 대응... 포대당 5천원

보성군은 통합RPC과 지역농협 등에 벼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벼 출하 장려금’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벼 출하 장려금’은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과 지역농협이 각각 2,500원을 부담해 포대당 총 5,000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원 포대는 40만 포대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2021년산 조곡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정공 기준 4만6,624원으로 전년(5만1,826원)에 비해 11%나 하락했다. 쌀값 하락폭은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역농협 측에서는 2022년산 벼 매입 때 우선지급금(5만 원) 형태로 벼를 수매하고, 잔금은 가격결정 이후 추가 지급했다. 결정 가격

은 포대당 5만4,000원 선으로, ‘벼 출하 장려금’을 통해 5만9,000원 선으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결정 가격 6만4,000원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산지 쌀값을 고려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하 장려금은 농협 우선지급금 차액과 함께 농가에 직접 지급됐다.

2022년산 벼는 지난해 10월부터 농협과 정부 지원 RPC 등에서 자체매입을 시작으로 수확기 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도 10월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7일에 끝이났으며, 1만 5,000여 톤에 이르는 건조벼 매입을 모두 마쳤다.

김철우 군수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대응해 군과 농협이 벼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엔 벼 출하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백운장학회, 장학금 6억1,575만원 전달

초·중·고·대학생 412명 대상

(재)백운장학회(이사장 정인화)가 최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백운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장학금 수여자와 학부모, 장학회 이사장인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장학회 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초·중·고·대학생 412명과 특기 지도 우수학교 7개교로, 총 6억 1,575만 원이 지급된다.

장학금 수여자는 대학생 281명, 유학생 2명, 특기 장학생 33명, 선행 장학생 9명, 다문화가정 9명, 다자녀가정 59명, 지정 기탁(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19명이고, 예·체능 등 특기 분야 수상실적이 우수한 7개 학교에도 격려금이 지급된다.

수여식에 앞서 ㈜신우전력(대표 윤우혁) 1,000만 원, 광양시산림조합(조합장 송백섭) 1,000만 원, ㈜동주종합건설(대표 양동일) 500만 원, ㈜신광판유리(대표 전용배) 500만 원 등 4개 업체에서 3,000만 원의 기탁금을 전달해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는 2009-2015년까지 백운장학금을 받아 광양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이주인 씨가 참석해 후배 장학금 수여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정인화 이사장은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는 법이다”며 “지람스러운 백운장학생이라는 자부심으로 더욱 정진해 자신의 꿈을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화순군이 최근 화순군보건소에서 마을주치의 운영 업무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주치의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 /화순군 제공

화순, 마을주치의 운영 간담회

화순군이 민선 8기 들어 도입한 마을주치의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보건소에서 마을주치의 운영 업무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주치의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5개월간의 마을주치의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내실 있는 공공의료 확충과 마을주치의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마을주치의 제도는 현재까지 총 400회를 운영해 지역 어르신 5836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세부적으로는 혈압, 혈당 등 검사실적 2만 665명,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방문 453명, 보건교육 371회, 건강 체조 70회, 치매예방, 심뇌혈

관예방, 노인정서 안정 프로그램은 66회 등을 제공하며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의료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현대삼호중 임직원, 취약계층 온수매트 기탁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 임직원들이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여만원 상당의 온수매트 50개를 목포시

에 지정기탁 했다. 온수매트는 23개 동행정북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은 급여의 1%를 적립한 ‘1% 나눔재단’을 통해 2020년 여름용품 기탁(650만원 상당), 2021년 휴서기·동절기 물품 기탁(2,725만원 상당), 2022년 여름나기 꾸러미 기탁(1,500만원 상당)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재)백운장학회가 최근 광양시청에서 백운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광양시 제공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농업회사법인 (유)서호, 쌀 기부

무안군은 최근 계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유)서호(대표 정중석)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10kg 쌀 200포를 기부 받았다.

정중석 대표는 평소 사회 나눔과 실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농공 단지화와 병해충 공동방제 등 지역농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태풍, 폭설 등으로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새해는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가득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기부 받은 쌀을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남미륵사, 장흥 저소득층 후원품 전달

남미륵사(주지 범흥)가 최근 장흥군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불 100채, 백미 10kg 100가마, 김장김치 600상자를 장흥군에 기탁했다.

남미륵사는 장진군 공동면에 있는 사찰로 2006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김장김치 등을 기탁해오고 있다.

범흥스님은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장흥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남미륵사의 선행이 장흥군에 큰 감동을 주고있다”며 “기탁하신 물품은 장흥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한전KPS(주) 인재개발원, 성금 기탁

나주시다도면은 최근 한전KPS(주) 인재개발원(원장 남궁장)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특화사업인 ‘다가치·다도면 밑반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궁장 원장은 “소소한 성금이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영란 다도면장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나눔과 봉사를 매년 지속해온 한전KPS(주)인재개발원 임직원들의 온정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나주=조충권 기자